

‘5·18 정신’ 헌법 수록 李정부 국정과제 됐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내년 지선·2028 총선 때 개헌투표
균형발전 목표 5곡·3특 전략 추진
인공지능·에너지 전환 투자 포함
광주·전남 성장 동력 강화 큰 기대

이재명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과 함께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16일 확정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개헌 과정에 5·18 정신 수록과 5곡·3특 추진,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투자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 정체성과 성장 동력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과 호남권 전력망 보강, 역사관광 활성화가 맞물릴 경우 체감 효과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3개 추진전략, 123개 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의결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아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반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개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반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개헌 분야에서는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기본권 확대, 지방자치·균형발전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패키지로 제시됐다. 정부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하

는 방안도 열어졌다.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 강화, 방첩사·경찰국 폐지 등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견고히 하는 방향이다. 국민참여·속의공론 시스템 확대,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도 포함돼 사회적 신뢰 회복을 겨냥한다.

경제 분야는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혁신자본을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외교 안보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전작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진입, 호혜적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경제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균형성장 목표 아래서는 5곡·3특 전략과 지방재정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분권 아젠다가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직불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확충 등 민생 대책도 병행한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RE100 산단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사회안전망은 산재 국가책임 강화, 기초생활보장 개선, 통합돌봄, 청년미래저금, 아동수당 확대, 법정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생활 전반의 안전·복지를 촘촘히 보완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작업현장의 존중을 강화한다.

정책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이 설치돼 966건의 입법과제(법률 751, 하위법령 215)를 전주기로 관리한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제·개정 예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고, 민생 현안은 민관합동 현장점검으로 후속 조치를 담보할 계획이다.

성과 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전략산업, 규제합리화, AI 기반 업무혁신, 디지털 소통·홍보를 중점평가하고, 국민참여와 만족도 반영 비중을 높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이 내린 목소리’ 조수미, 광주의 가을밤 수놓다



16일 오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조수미 갈라콘서트 ‘광주, 세계의 빛이 되길’ 무대에 오른 조수미가 ‘모두가 알아요’를 부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갈라콘서트

세계양궁선수권대회로 뜨거웠던 광주에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조수미의 콘서트가 열렸다. 맑게 번지는 고음과 섬세한 선율은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다시금 각인시키며 예향 광주의 가을밤을 특별한 시간으로 수놓았다.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조수미 갈라콘서트 ‘광주, 세계의 빛이 되길’이 펼쳐졌다. 광주일보사와 강화주식회사가 주최한 이번 공연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적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과 나누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찾은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70년의 역사까지 기념하며 빛고을의 문화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담았다. 광주시·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BBS·광주대학교·나코스·(재)한국재단 안전기술원이 후원했다.

공연의 문은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55인조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막을 열었다. 곧이어 무대에 오른 조수미는 매혹적인 음색과 뛰어난 음악적 해석으로 감동과 품격을 선사했다. 도니체티 오페라 ‘연대의 딸’ 중 ‘모두가 알아요’를 불러 관객들에게 극적인 긴장과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협연 무대도 빛났다. JTBC ‘팬텀싱어3’로 주목받은 테너 장주훈은 ‘사랑한다 말해주고, 마리오’와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로 호소력 짙은 무대를 꾸며 객석의 환호를 받았다. 해금 연주자 이세미는 조수미와 함께 ‘민들레야’, ‘흔들리며 피는 꽃’을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내년 데뷔 40주년을 앞둔 조수미를 위해 준비된 깜짝 영상이 상영된 것이다. 영상은 “조수미 선생님의 지난 40년 음악 여정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사랑과 평화의 울림을 전한 소중한 역사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관객들과 광주 시민 모두가 그 숭고한 여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미국 車 관세, 일본 15%·한국 25% 적용

한국 자동차 산업 타격 우려

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돼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이날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 동부시간 16일 0시 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1분)에 시작된다.

앞서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5%p 관세를 추가해 27.5%를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주력

모델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현대차·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연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불균형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 최대 자동차 생산 기지인 기아 오토랜드광주와 협력 업체, 부품사가 지 연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5전남국제
수목비엔날레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2025

문명의 이웃들
somewhere over the yellow sea

2025.08.30.—10.31.
목포시, 진도군, 해남군 등 전남 일원

주최 전라남도 주관 전남 문화재단